



광주비엔날레, 43팀 작가와 '변화 여정' 나선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 43인(팀)이 확정됐다.

(재)광주비엔날레는 9일 "오는 9월5일 개막하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You Must Change Your Life)'에 참여할 작가 43인(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여 작가는 호 추 니엔 예술감독과 박가희, 브라이언 쿠안 우드, 최경화 큐레이터가 선정했다.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작가들이 참여해 예술적 실천 속에서 삶의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의 방식을 살펴본다.

올해 비엔날레는 '변화'를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신체와 지각, 관계가 재편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바라본다.

호 추 니엔 예술감독은 "우리는 이번 비엔날레를 서로 다른 규모와 영역에서 이뤄지는 실천과 실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대화하고 질문을 던지며, 무엇보다 서로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만남과 연대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는 분자적 차원에서 우주적 차원까지 다양한 규모를 오가는 여정으로 펼쳐진다. 친밀한 몸짓과 익숙한 관계에서부터 사회적 관계와 세계를 관통하는 공명에 이르기까지, 참여 작가들은 제마다의 방식으로 '변화'에 접근한다.

니나 카벨은 물질과 에너지의 미세한 움직임

몸·사회·자연·우주 아우르는

예술적 실천 한자리

오월어머니집, 허백련 등

광주의 기억 함께 담아

에 주목하며, 왕지아하오는 회화를 통해 후기 사회주의적 삶의 실존적 무게를 다룬다. 라파 그레이스는 호흡과 움직임의 통해 초월적 경험을 탐구한다.

반복과 규율, 집중을 바탕으로 삶 자체를 작업의 재료로 삼아 온 작가들도 함께한다. 시에테칭과 아민다 행은 시간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A. K. 돌벤, 매튜 바니, 정금형, 안젤라 고는 신체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다룬다. 모나 벤야민은 가족이라는 단위를 낫설게 바라보며 정치적 부당함과 불안정, 부조리 속에서 친밀성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자연과의 관계를 탐색한 작가들의 작업도 소개된다. 관람객은 임동식의 여정을 따라 자연 미술가 우광남(중선)을 만나게 된다. 이와 함께 예술과 농업, 자연과 배움을 하나로 엮었던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들인 오월어머니집 정명희·강해중·박순금, 허백련, A. K. 돌벤, 사사키 켄, 정금형, 니나 카벨, 사오다트 이스마일로바의 작품.



허백련의 삶과 그가 일군 춘설차(春雪茶)도 소개된다.

공동의 학습과 연대, 집단적 실천을 다루는 작업도 눈길을 끈다.

크리스티안 니암페타는 신체가 다른 신체와의 관계 속에서 활성화되고, 공동의 배움 속에서 서로의 역량이 확장되는 과정을 다룬다. 키리 달레나는 개인과 가족, 거리의 시위 현상으로 이어지는 신체의 확장을 보여준다. 사오다트 이스마일로바와 소흐랍 후라는 신체가 다른 세계와 공명하는 순간을 탐색한다.

이번 비엔날레는 광주를 예술과 집단적 실천, 정치적 변화가 긴밀하게 얽힌 도시로 바라본다. 광주가 억압과 위기의 조건을 창조적으로 전환해 온 역사를 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오월어머니집 어머니들의 그림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최명진기자

한여름밤, 장르의 경계를 지우다

'Still Live'...내달 4일 ACC 극장1

재즈와 클래식을 넘나드는 공연 프로젝트 'Still Live'가 오는 7월4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열린다.

전남일보가 주관하고 ACC와 전남대 RISE 사업단이 협력하는 이번 공연은 익숙한 멜로디를 새롭게 해석한 무대로 꾸며진다. 정지수 트리오와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희연이 출연하며 전남대 예술대학의 특별 무대도 마련된다.

1부는 피아니스트 정지수, 베이스리스트 전창민, 드러머 김태현이 무대에 오른다.

정지수는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클래식을 수학한 뒤 버클리 음대 학사, 맨해튼 음대 석사 과정을 통해 재즈를 전공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다. ASCAP 재즈 콩쿠르 수상, '브릿지스 국제 작곡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 등 국제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해 왔다.

함께 연주하는 전창민과 김태현 역시 해외 음향대학에서 재즈를 전공한 연주자로, 국내외 주요 무대와 프로젝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재즈 스탠다드 곡 'Caravan', 'Oleo', 'Summer Night'를 비롯해 정지수의 자작곡을 선보인다. 재즈의 즉흥성과 클래식의 섬세한 구조가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계절의 변화와 도시의 풍경, 삶의 서정을 음악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2부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희연의 솔로 무대로 진행된다.

김희연은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금호아시아나 영재·영아티스트로 데뷔했



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석사를 졸업했다. 국내외 주요 기타콩쿠르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현재 갈밴드 LATENCY의 리더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구독자 2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똥치팡치'를 운영하며 클래식 기타의 대중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클래식 기타 대표 레퍼토리와 평소 즐겨 연주하는 곡들을 선보인다. 클래식 기타 특유의 섬세한 음색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공연에 앞서 초대권 증정 등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stilllive_) 팔로워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허백련·오지호 등...흥학관에 모인 예향 광주 거장들

동구문화관광재단, 특별기획전

광주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광주의 역사·정신을 간직한 흥학관에서 열리고 있다.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장현)은 오는 7월28일까지 흥학관 2층 갤러리에서 '예향 광주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흥학관 갤러리 개관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기념해 마련됐다.

흥학관은 일제강점기 지역 인재 양성과 민족 의식 고취에 힘쓴 옛 흥학관의 정신을 계승한 공간이다. 광주학생운동과 광주정신의 역사적 맥을 간직한 상징적 장소로, 이번 전시는 광주의 역사와 예술적 자산을 함께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최명진기자

동구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재단과 흥학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에는 광주를 대표하는 원로·중견 작가 19명이 참여한다.

남종화 거장 허백련과 호남 인상화단을 대표하는 오지호를 비롯해 임직순·진양욱·황영성·오승운·정승주(이상 작곡), 박행보·강연준·최영훈·오건규·허달재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할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